



오세혁 서중회원 영국 국비장학생으로 선정

3년간 체재비 전액 - 박사과정 포함

탈북자로 방일영장학생이었던 오세혁씨가 지난 5월 중순 주한 영국대사관 주관의 영국 국비장학생 선발 전형에서 단독으로 선정됐다. 우리 장학회 대학원 13기인 오씨는 한국에 정착한 이후 한국외대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올해 초 고려대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영국문화원에서 하루 4시간 씩 무료로 집중적인 영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오는 8월 영국 유학을 떠난다. 박사과정을 포함해 3년간 기숙사비와 생활비 등 전액 영국 국무성 장학금을 받으며 런던정경대학(LSE) 등 3개 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해놓고 있다. 탈북자 출신이 영국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은 오씨가 처음이다.

“탈북자 중 첫 번째 방일영장학생으로 선발됐을 때 정말 기쁘는데 다시 영국 국비장학생으로 공부하러 가게 돼 설레임과 함께 책임감도 무거워졌다”고 오씨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후배들인 38기 탈북장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북한 등 개발도상 신흥국기들을 도와주는 방법론 중심의 개발학을 전공하겠다고 말했다.



5월 17일 영국문화원에서 열린 장학금 시상식에서 장학증서를 받아든 오세혁씨(가운데), 왼쪽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오른쪽은 마틴 윌슨 주한 영국대사.

주한 영국대사관은 탈북자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통일부와 대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학회 여름수련회 개최

방일영장학회 올 여름수련회가 6월 24~25일 강화도에서 열렸다. 참가 인원은 장학회원 33명과 재단 직원 2명 등 35명. 장맛비와 태풍 특보가 겹쳐 모두들 날씨 걱정을 하면서 출발했지만 정작 강화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예정된 행사 일정을 계획대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첫날은 강화도 북단에서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하고 지난 해 수련회 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전등사 부근 '강화도 자연체험 농장'을 다시 찾았다. 승마 체험과 활쏘기, 트랙터 몰기에 이어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갯벌 축구와 갯벌 달리기 릴레이 경주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저녁 때 숙소인 화도면 장화리에 도착, 생선회와 바비큐 구이 등으로 식사를 하고 펜션에서 노래자랑과 각종 게임으로 늦게까지 어울리며 친목을 다졌다. 이튿날은 배편으로 석모도에 들어가 모문사와 마애불을 구경하고 강화읍으로 나와 점심 식사를 한 후 서울로 돌아왔다. <관련기사 10면>

세브란스 암병원 건축기금 1억원 전달



재단은 4월 2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암전문병원 건축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조연홍 재단이사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이철 연세의료원 원장(네 번째) 등이 참석했다. 암병원 건립은 연세대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이사장은 “1969년 국내 최초로 세브란스 병원에 암센터가 세워졌고, 현재 세브란스병원을 찾는 사람의 50%가 암환자인 것으로 안다”며 대기업이나 정부 보조금 없이 진료 수입과 기부금으로만 운영되는 이 병원의 암 정복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암센터는 개원 후 42년간 6차례 증-개축을 했으며 현재는 2014년 완공 목표로 지상 15층의 전문병원을 짓고 있다. 대학측은 건립 비용중 1000억원을 모금하고 있다.

제28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 후원

재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식이 5월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올해 수상자는 국민일보 정치부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최 기자는 여성전문기자의 지평을 군사분야까지 넓혔으며,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 때 한글이 새겨진 어뢰 추진체를 발견했다는 특종 기사를 쓰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1988년 국민일보 입사 이후 국제부, 사회부, 정치부 등을 거쳐 2009년부터 군사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다. 상패와 재단이 후원하는 상품 1000만원을 이날 받았다.



최현수 기자(앞줄 가운데 꽃다발 든 사람)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역대 최은희여기자상 수상자들이 모였다.

이 상은 근대 한국의 여성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추계 최은희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83년 제정됐다.

한글 창작글꼴 지원금 수여



제4회 창작글꼴 개발자로 선정된 이새봄씨(왼쪽)가 조연홍 재단이 사장으로부터 지원금 증서를 받고 있다(오른쪽).

재단이 후원하고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제3회 한글 창작글꼴 발표 및 제4회 지원금 수여식이 3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3회 지원금 수혜자였던 글꼴 디자이너 류양희씨가 2년간의 고된 작업 끝에 만들어낸

본문용 한글 글꼴 ‘고운한글’ <왼쪽 글씨 사진>을 발표했다. 류씨는 “경필(硬筆)로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의 특징을 담아 안정적인 느낌의 글꼴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제4회 지원금 수혜자로 새로 선정된 이새봄(28)씨는 ‘가로쓰기용 본문 붓글씨체’를 개발해 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씨는 2년간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재단이 문화예술위원회에 기탁한 ‘방일영문화기금’ 2억원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시각적으로 아름다우면서도 가독성 높은 한글 본문 활자체를 개발하기 위해 2년마다 젊은 디자이너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한 명을 선정해 지원금을 주고 있다.

《고운한글》은 방일영문화재단 한글글꼴창작지원사업의 제3회 지원을 받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만들었습니다.

한글, 한글, 또박 또박, 정성껏 글씨 썼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글씨와 그때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장학회 수첩 발간

재단은 3월 초 2011년도판 방일영장학회 수첩 600부를 발간, 서중회원과 장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수첩을 새로 제작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오래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서중회원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이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장학회 동기들은 재단으로 연락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수첩의 사진을 바꾸기를 원하는 회원들의 전화도 기다리고 있다. 전화 (02)724-5041

언론인 저술지원금 600만원으로 증액

재단이 언론인과 언론학자들의 저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가 올해부터 기존의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결정은 재단의 저술지원 사업에 대한 언론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저술 출판물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증액된 지원금을 처음 받게 되는 올 상반기 저술지원대상자는 모두 13명으로 응모자 49명 가운데서 지난 5월 17일 선정됐다. 이들은 1년 이내에 저서를 출간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김동익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김택한
중앙일보 미디어전문기자



김현식
미국 콜로라도대학
저널리즘스쿨 교수



박만원
매일경제 국제부 기자



박영석
조선일보 국제부 차장



배기형
KBS 국제협력실 차장



여영무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윤병욱
전 경향신문 주미특파원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장공남
제민일보 교육체육부
차장대우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



주성하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황원갑
전 서울경제 사회문화부장

김용원 이사, 사진전 준비



김용원 재단 이사가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에서 지난 10년간 찍은 ‘쿠부치 사막’ 전시회를 오는 8월 열기 위해 준비중이다. 김 이사의 생애 세 번째 사진전. 김 이사는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황사의 발원지인 쿠부치 사막에 나무를 심어 방풍림을 조성하고 황사를 막기 위해 한국·중국 대학생들과 함께 10년째 나무를 심어오고 있다. 그는 권병현 전 주중대사와 함께 녹색봉사단 ‘한중 미래숲’을 출범시켜 그동안 1000여명이 480만 그루를 심었다. 이 가운데 70%가 뿌리를 내려 살고 있다.

안병훈 전 재단이사장, 이승만연구소 회장에 선임



안병훈 전 재단이사장이 3월 9일 창립식을 갖고 문을 연 이승만연구소 회장에 선임됐다. 이 연구소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우남 이승만 박사와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고, 한국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연구와 학술활동을 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제1회 박헌봉국악상 수상



박범훈 심사위원장

방일영국악상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5월 8일 경남 산청군으로부터 제1회 박헌봉국악상을 수상했다. 기산(岐山) 박헌봉(朴憲鳳 · 1906~ · 976) 선생은 경남 산청이 고향으로 정악과 민속악을 두루 배웠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요와 판소리를 채록하는 등 국악발전에 큰 자취를 남겼다. 특히 국악 교육에 힘써 방일영 전 조선일보 고문 등 국악 애호가들의 도움을 받아 1960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악학교인 국악예술학교(현 국립전통예술고교)를 설립, 초대 교장을 지냈다. 산청군은 기산 선생의 업적을 기려 이 상을 제정했다.

첫 수상자인 박 전 총장은 1965년 기산이 설립한 서울국악예술고에 입학해 피리를 배웠으며 이후 국악유치원과 국악중학교를 세우는 등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노력해왔다. 현재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일하고 있다.

서중포럼 소식



제2011년 1차 서중포럼.

2007년 이래 매년 세 차례 모임을 갖고 서중회원들간의 친목과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 있는 '서중포럼' 은 올들어 4월 7일 저녁 서울 서초동 소재 식당 '세종원'에서 제1차 모임을 가졌다. '서중포럼' 은 이날 최성환 회장 등 총 16명 회원들이 참석하여 김윤주 회원(31기)의 발제하에 'Facebook 활용방법' 에 관하여 배우고 SNS문화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현종찬, 강희철, 문하영, 한백현, 최성환, 송양민, 오양호, 김영빈, 김성호, 박재현, 이수희, 강민성, 류승균, 김영철, 김춘수, 김윤주 등이다. 이수희 총무(15기 · 연락처 010-9023-3470)는 앞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의도모임 소식

서중회원들 중 여의도에 직장이 있는 회원들이 모이는 '삼수회' 는 매일 셋째 수요일에 모이게 되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멤버를 소개하면(팔호안은 기수, 근무처) 안병찬(1, KB투자증권), 한백현(3, 금융감독원), 최성환(4, 대한생명), 구성민(15, 키움증권), 이세중(19, 수출입은행), 윤종언(19, 코스콤), 이민규(20, 금융감독원), 박일중(20, KBS), 변재은(21, 금융감독원), 송승훈(22, 금융감독원), 정대연(23, MBC), 배학진(23, 국민연금공단), 김영철(24, 예일회계법인), 김윤수(25, 중진공), 고제리(26, 산업은행), 정현숙(27, KBS), 최소연(30, 산업은행), 장예리(32, S-OIL) 회원이다. 대개 10명 이내로 참석해서 오찬과 함께 정담을 나누고 있다.

시카고 서중회원, 재단 사무국 방문

대학원 3기 서중회원으로 미국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인 이창환 회원이 6월 27일 재단 사무국을 방문했다. 이창환 회원은 고려대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에서 8년 전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귀국길에 잠시 들렀다는 이 변호사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해준 재단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며 서중회원이나 장학생들이 시카고 근처에 들릴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내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도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락처) 312-485-1639 / 직장 847-375-9620

뉴욕 서중회 결성

(※ 이 메일은 서중회 33기 이민지 회원이 재단에 보내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중회 33기 이민지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World Bank에서 근무 중입니다. 19기 류승균 선배님께서 이메일을 주셔서, 미국 동부에서 서중회 뉴욕 모임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류승균 선배님의 추진 아래, 2010년 1,2회 모임에서는 류승균 선배님(19기), 김현섭 선배님(25기), 박준연 선배님(25기)께서 참석하셨고, 세번째 모임에서는 박재현 선배님(15기)까지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네번째 모임이자,



왼쪽부터 류승균, 박재현, 최원석 회원.

2011년 첫 모임(2월19일)에서는



이민지 회원.

서중회 모임이 좀 더 체계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선배님, 최원석 선배님(18기)께서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첫 모임 이전에 류승균 선배님과의 점심 회동에서, 모임의 기본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1) 18기 최원석 선배님을 2011년 뉴욕 서중회 초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2) 총무에 25기 박준연 선배님을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분기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갖는 대신 회원들의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모두 참석하는 의무를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회원에는 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기 박재현 선배님 -뉴욕 (Baruch College / 2011년 안식년인 관계로 서울대 로스쿨에서 강의중)
- 18기 최원석 선배님 -뉴욕 (JP Morgan)
- 19기 류승균 선배님 -뉴욕(사업)
- 19기 양기욱 선배님 -메릴랜드 (지식경제부 근무. 2년간 해외 연수중)
- 25기 김현섭 선배님 -뉴욕 (NYU)
- 25기 박준연 선배님 -뉴욕 (변호사)
- 27기 김영식 선배님 -뉴욕 (Syracuse Univ.)
- 33기 이민지 - 워싱턴 DC (World Bank)

안병찬 회원 저서 발간



서중회 1기 안병찬 회원(KB투자증권 감사· 전 한은 국제국장)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을 다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정책’ 을 펴냈다. 당시 그는 한국은행 국제국장으로서 있으면서 우리가 보유한 외환을 풀어 국내 금융기관에 달러를 공급하는 한편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어 우리나라에 달러를 들여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협정 체결 후 우리 외환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이 책은 그동안 환율이나 외환시장에 관한 서적이 주류를 이루었던 국내 출판계에 새로운 영역을 제시해 주었다. 환율은 물론 외화자금 공급, 외환보유액의 적정 규모 논쟁, 자본자유화, 외환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외환 교과서’ 라고 할 수 있다. 저자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해박한 국제금융이론에 근거해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것 또한 특징이다. 저자는 “외환은 보유액을 늘리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언제 든지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병욱 회원 환경정책학회장에 선임



서중회 2기 이병욱 회원(세종대 교수)이 지난 2월 임기 2년의 한국환경정책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회원은 현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영월군에 도서 기증

재단은 강원도 영월군에 재단 소장 도서 85권을 기증했다. 이 책들은 언론인 저술지원 서적들로 재단에 납본된 것 중 일부이다. 영월군은 민원봉사실 서가에 ‘방일영문화재단 도서’ 코너를 만들어 이 도서들을 비치하고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도서 기증은 영월군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신문기자가 되어보니...

김은정 <조선일보 사회부 기동취재팀 · 서중회 34기>



김은정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지난 토요일, 회사 선배 결혼식에 갔다가 가방을 도둑맞았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제가 뷔페 음식을 받으러 간 사이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의자 위에 있던 제 가방을 집어가더군요. 동료들이 모두 걱정하는 가운데 저는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취재의 필수품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사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직업병일까 싶었습니다.

는 혼자인 상황. 물을 먹을(낙종) 수도 있던 생각에 경비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방금 올라가지 않았느냐. 공평하게 하라” 결국 그 수습은 끌려 내려왔고 그날 강희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일로 동아일보 기자들에게 ‘기자간 상도덕을 모르고 욕심 많은 수습’ 으로 찍혔고 이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 다른 회사 수습들

과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남을 해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위한 욕심이었는데 한순간에 비겁한 사람이 되어버린 상황이 괴로웠습니다. 한 선배 “천안함 때 한겨레 사진기자만이 소방차에 숨어들어가 연일 1면 단독을 터뜨렸다”며 “당연히 그도 못가게 막든지 나도 들어가든지 해야하는 것이다”라며 오히려 잘했다 칭찬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찾아온다 해도 저는 똑같이 할 것입니다. 이런 욕심 더 내서 좋은 기사 많이 쓰겠습니다.

제 이메일 아이디는 icdi@chosun.com 입니다. ‘I Can Do It’ 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넘어 대한민국 기자로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지금보다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대기자들이 90년간 쌓아온 프리미엄에 우월하지 않고 ‘놈 자’ 한자를 쓰는 ‘기자(記者)’ 라는 이름 뜻 그대로 겸손하게 기자의 길을 걸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먹고 자는 수습기자 시절 별일도 많았습니다. 강희락 前 경찰청장이 함비리로 자취를 감춰 서초동 그의 집 앞에서 밤새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동아일보 1진기자들과 수습기자가 나타나더니 수습이 주민인 척 몰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집 안에서 나오는 길목을 동아일보가 모두 지키게 된 것입니다. 저

수련회를 다녀와서

김정은 <장학회 38기 · 서울대 경제학과 2년>



신 나게 수련회에 갈 채비를 하고 있던 도중에, 별안간 일기예보를 하는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일(23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비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출발하기 이틀 전부터 짐을 챙길 정도로 기대하던 수련회인데 장마도 모자라 태풍이러니,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기예보였다. 기상청의 예보가 틀리기를 이틀 내내 바랐지만, 출발하는 날 서울에는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렸다. 하지만, 강화도에 다가가면서 비가 점차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강화도에 도착할 즈음에는 북한 땅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날이 개여 있었다.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어제 왔던 분들은 비구름 때문에 아무 것도 보

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오늘은 북한 땅이 꽤 잘 보이네요...” 그렇게 ‘운 좋은’ 우리들은 즐거운 1박 2일간의 수련회를 시작했다.

북한 땅 바라보며 안보와 통일의 중요성 깨달아

첫 목적지는 남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강화평화전망대’였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땅까지의 거리는 불과 2.3km로, 분단이 되기 이전에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헤엄을 쳐서 놀러 다녔다고 한다. 바로 앞에 보이는 조강(祖江)은 ‘할아버지 강’이라는 그 이름처럼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까지 보듬어 흐르고 있었다. 전망대의 왼편으로는 북한의 중요한 곡창 지대인 연백평야가, 바로 뒤로는 개성 송악산이, 오른편으로는 ‘평화의 소’가 홍수에 떠내려

왔다는 섬 유도가 보였다. 문화 해설사로부터 저곳을 지켜야 한다고 아쉬워했던 참전 용사의 이야기와 하염없이 북한 땅을 바라봤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새삼 안보와 통일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이는 북녘을 뒤로 하고 달려온 곳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었다. 가장 먼저 해볼 체험은 승마였는데, 나는 승마를 처음 해보는 것이라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승마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기쁘거나 긴장을 하고 있는데, 시범을 보이는 말이 영 말을 안들어서 더욱 걱정이 되었다. 게다가, 내가 배정받은 말은 하필이면 시범을 보이던 바로 그 말이었다. 하지만, 막상 말이 달리기 시작하자 걱정은 말끔히 사라졌다. 내가 탔던 백마인 ‘구름이’는 잘 달리다가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며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말이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 위에서 천천히 흔들리며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었다. 다음으로 체험한 것은 양궁이었다. 처음 해보는 것이었는데도 활을 쏘는 족족 화살이 과녁에 맞아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그 과녁이 옆 사람 과녁이었다. 군대를 다녀온 선배들은 10점 만점에 10점을 쏘며, 예비군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갯벌에서 축구와 달리기

체험장의 마지막을 장식할 활동은 갯벌체험! 트랙터가 이끄는 대로 달려가자, 회색빛 갯벌이 어느덧 온통 붉은 빛으로 변해 있었다. 알고 보니, 이 붉은 빛은 해마다 일곱 번 색을 달리한다는 뜻의 ‘칠면초’라는 이름을 가진 염생식물이 만들어



강화평화전망대 관람을 끝내고

내는 것이었다. 동검도로 이어지는 제방도로 건설로 인해 갯벌의 염도가 변하면서 형성된 칠면초 군락은 바다 위에 드넓은 꽃밭이 펼쳐진 듯한 장관을 이루었다. 겨울이면 칠면초 뿌리를 먹고 자란 게를 먹으러 두루미가 찾아온다는데, 그 즈음 이곳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내해준 분의 말에 따르면, 현재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으로 인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이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모쪼록 다시 찾을 때까지 이 멋진 풍광이 무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붉은 빛 칠면초 군락을 뒤로 하고 다시 회색빛 갯벌로 돌아온 우리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갯벌로 뛰어 들어갔다. 처음에는 미끌미끌한 갯벌 위에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잠시 후 남학생들은 그 위에서 축구에 답싸움까지 하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한편에 모여서 피부에 좋다는 머드를 치덕치덕 바르고 도란도란 수다를 떨며 갯벌을 산책했다. 나중에는 모두가 두 팀으로 나뉘어 릴레이 달리기 시합을 했다. 달리다가 넘





어지면 일어서기조차 힘들만큼 갯벌이 미끄러웠다.

갯벌 위에서 실컷 놀고 나니, 배도 고프고 노곤하기도 하여 장화리에 위치한 식당으로 가는 동안에는 모두가 잠에 골아 떨어졌다. 저녁 식사를 했던 장곶횃집은 낙조마을에서도 해님이 가 특히 멋지다고 소문난 곳이었는데, 음식맛까지 좋아서 눈과 입이 모두 즐거웠다. 맑은 하늘에서 보이는 해님도 장관이었겠지만, 구름이 살짝 낀 하늘에서 보이는 해님은 몽환적인 색을 만들어내어 독특한 멋을 선사해주었다. 장곶횃집에서 맛보았던 '밴댕이'는 속이 좁다는 소문과는 다르게, 입 안에 오래도록 감도는 감칠맛을 통 크게 선사해주었다. 계절학기 수업을 마친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뒤늦게 서울에서 속속 도착하면서, 빈 식탁은 다시 저마다의 이야기들로 가득 들어찼다.

탁트인 바다 조망에 한 학기 쌓인 스트레스 다 날아가

숙소인 펜션에서는 도착하자마자, 국장님의 건배 제안을 시작으로 한 성대한 바비큐 파티가 벌어졌다. 불과 오전에만 하더라도 서로 어색해 했었는데, 어느덧 모두가 스스럼없이 함께 어울려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즐거운 술자리에 이어 신나는 노래 마당이 펼쳐졌는데, 각기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며 '나는 가수'라고 자랑했다.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이 언제 저렇게 노래 실력을 갖고 댄왔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곧이어, 장학회 간사인 현석 오빠를 필두로 한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시작되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게임에 후배들은 하나씩 지쳐 쓰러져갔지만 선배들은 특유의 노련함과 저력으로 새벽까지 자리를 지켰다.

흥겨웠던 밤이 지나가고, 수련회의 마지막 날이 밝아왔다.

시원한 새우호박탕으로 전날의 피로를 풀고, 마지막 일정이 예정된 석모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재단 사무국 진옥 언니는 세심하게도 갈매기에게 줄 새우깡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셨는데, 덕분에 서해안의 모든 갈매기가 다 모인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갈매기들이 어찌나 달려드는지 나중에는 눈 앞이 어질어질해질 정도였다. 석모도에 도착하여 초록빛 논 사이를 버스로 잠시 달려가자, 보문사가 눈 앞에 나타났다. 해송에 둘러싸인 산자락에 위치한 보문사는 뛰어난 풍광을 자랑했다. 특히, 마애관음좌상 앞에서 바라보는 석모도의 경치는 할 말을 잃게 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올라간 돌계단의 끝에서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니, 한 학기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말끔하게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석모도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다시 배를 타고 강화도로 건너와 맛 좋은 한우불고기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차를 타고 한 잠 늘어지게 자고 나니 어느새 서울에 도착해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높은 빌딩들을 올려다 보니, 불과 두어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오래된 일처럼 느껴졌다. 1박 2일간의 수련회에서 한껏 친해져 헤어지기가 무척이나 아쉬웠지만,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제껏 가보았던 여행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길고도 짧은 일정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기 중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학기를 마친 후에는 이처럼 즐길 기회까지 제공해주시는 재단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탈북 장학생이 본 통일독일 현장

- 이 글은 이화여대 2학년에 재학중인 38기 탈북 장학생이 독일에 가서 보고 느낀 소감을 보내온 것이다 - <편집자>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행사 참가자들이 한반도 깃발들을 펼쳐놓았다.

(사)기독교북한선교회, 서울신대 북한선교연구원소에서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 CCC통일봉사단, 한국기독교통일포럼에서 후원한 통일독일순례는 6월 20일에 시작하여 7박8일간 진행되었으며 남북한출신 기독교인 청년(대학생)들과 스텝 등 총 36명이 참가했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이유와 과정은 다르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처리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단되었고 몇 십년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1989년 동서독을 가르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이듬해 독일은 통일의 감격을 경험하였다. 올해로 독일이 통일을 이룬지 20년이 지났다. 독일 통일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한

반도 통일이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다. 또한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 후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은 장차 남북한이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통일 후의 독일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심어주며 다가올 통일을 위해 21세기의 통일세대로 준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21세기 통일세대 준비가 목적

행사일정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하여 베를린에서 마감



예전 동서독 경계 지역을 걸어서 돌아보는 통일순례단.

했다. 18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첫날은 모두 녹초가 되어 정신이 없었다. 첫날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전 독일 국회의원이었던 에터카 슈하르트 교수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슈하르트 교수는 독일통일 당시의 동독과 서독 국민들의 정서를 자세히 설명했다. 서독의 국민들에게 통일을 권유하기 위해 동독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실시했지만 한순간에 집을 잃은 동독국민들의 불만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다음날 우리는 피들라로이트의 분단된 마을로 가서 현지인들에게 분단되었을 때의 상황과 분단 이후의 생활 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화목하던 마을이 한순간에 개울을 경계로 둘로 나뉘어지고 철조망과 장벽으로도 모자라 지뢰밭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내전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둘로 나뉘어졌지만 동서독 두 마을은 서로를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기를 고대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르다. 우리나라는 분단의 역사가 길고 또한 내전을 거치면서 서로를 적국이라 부르며 6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독일보다는 더 힘든 통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날은 라이프치히로 이동하여 독일통일의 시발점인 니콜라이 교회와 토마스 교회, 비밀경찰본부를 둘러보았다. 니콜라이 교회의 당시 담임목사였던 휘로 목사를 만나서 통일시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들었다. 독일은 기독교국가라서 분단이 되었어도 교회는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그대로 두었다. 따라서 구동독의 체제에 가장 불만이 많았던 청년들은 교회에 와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불만이 있으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 수가 많아지면서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이다.

비폭력 시위가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들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은 비폭력시위였다. 그들은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행진하며 비밀경찰본부 앞에 촛불을 모아놓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휘로 목사에게 당시 정부에서 니콜라이 교회와 휘로 목사님께 시위에 관련하여 어떠한 제제도 가해지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는 구동독이 아무리 독재체제라 하지만 교

회만큼은 존중해주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재는 없었고 비밀경찰 10여 명이 잠입하여 교란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나는 휘로 목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잠시 절망에 빠져있었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너무나 다르다는 현실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동독은 교회를 보호해주고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준다는 것. 하지만 북한은 모든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교회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정부 세력은 썩도 못되고 질려져 버린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독일과 같은 평화로운 통일은 전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남한교회도 북한교회를 도와줌으로써 남북 국민들간의 적대감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은 배울만 하다.

23일 우리는 통일을 염원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향했다. 가던 도중 버스에서 들떠있던 분위기를 순간 싸늘하게 만드는 소식을 들었다. 새터민이 독일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24일에 독일교회 교인들이 북한대사관 앞에서 인권데모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대사관 요원들이 출동하고 우리의 일정도 감시대상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노출되면 안되는 새터민 청년들은 참여시키지 말자는 의견에서부터 행사참가 일동이 전부 선글라스에 모자를 쓰고 남북한청년, 새터민 등 언어에 조심하면서 진행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24일 아침 우리는 퍼포먼스를 위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 광장으로 나갔다. 비록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새터민이 없으면 의미없는 퍼포먼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청년들과 남한청년들이 청년선언문을 낭독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강강술래를 추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했다.

이북의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마지막 날 우리는 작센하우젠의 포로수용소를 돌아보면서 행사를 마쳤다. 20년전 이 포로수용소에는 동독정부가 반정

부세력들을 잡아 가두고 노동을 시키면서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죽이거나 생체실험을 했다고 한다. 무려 20년이 지난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지만 지구를 반 바퀴 돌아 북한에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가슴을 찢어지게 만든다. 수용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어딘가에 게실 아빠 생각이 났다. 수용소에 갇혀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뻣속까지 스며드는 소름에 도망치듯 수용소를 나와버렸다. 언젠가는 남북한도 오늘의 독일처럼 웃는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면서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통일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통일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것을. 수많은 통일을 경험한 독일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비록 동서독과 남북한은 통일의 전제가 다르지만 그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베를린 퍼포먼스에 쓰일 한반도 깃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진행요원들.

교훈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고 절망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찾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피부로 느꼈던 통일을 젊은 세대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준비된 통일세대를 만들어나기라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 몇 가지

전체적으로 볼 때 동독은 아직도 재건중이라서 정리가 잘 안된 느낌이다. 또한 예술적 가치가 높은 옛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서독과는 달리 동독은 현대식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다. 또한 동독사람들은 인사에 인색하다. 마치 한국에 사는 새터민들을 보는 듯해서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들이 왜 인사에 인색한지를 알고 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적은 북한사람들은 진심을 담은 반가운 인사에 어색해하고 경계심을 품는다. 아마 동독주민들도 그러했으리라.

우리는 매일 저녁에는 조별로 모여서 현장을 체험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은 다 달랐지만 독일에 온 목적은 다 똑같았다. 독일에 도착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성숙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독일 현장으로의 여행은 헛된 걸음이 되지 않았다.

장학증서 수여식에 다녀와서

김민석 <장학회 38기 · 서울대 경영학과 2년>



신규 장학생들이 장학증서 수여식 후 방상훈 사장, 방우영 상임고문, 조연홍 이사장(앞줄 왼쪽부터)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시간을 가졌다.

2월 28일 오후 6시 조선일보사에서 신규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과 졸업생에 대한 기념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25명의 38기 신규 장학생, 15명의 대학(원) 졸업생과 함께 조연홍 재단 이사장님, 조선일보사의 방우영 상임고문님, 방상훈 사장님과 여러 서중회 선배님들이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장학생인 38기부터 새롭게 선발한 10명의 탈북 장학생들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 깊었습니다. 이들은 서울 시내 8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부 학생들입니다. 장학증서와 기념패는 조연홍 이사장님께서 모든 장학생

에게 직접 나눠주셨습니다. 먼저, 38기 일반 장학생 15명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가 진행됐습니다. 장학증서를 받으며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여러 장학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장학생 동기, 선배님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계속된 탈북 장학생들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 중에는, 북쪽에 고향을 두고 계신 방우영 상임고문님께서 장학생들마다 고향을 물어보시며 탈북 장학생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4년간 장학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졸업을 앞둔 선배님들에 대한 기념패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수여식이 끝나고 이어서 조연홍 이사장님께서 오늘 행사에 참석한 장학생들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먼저, 지난 몇 년 동안 장학회에 몸담았던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하시며 졸업생들 대부분이 유망한 진로로 나아가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이어 신규 장학생들 모두가, 재단에서 숙고를 거쳐 선발한 우수한 인재임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장학회 활동인 세미나, 여름여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신규 장학생들을 위해 방일영장학회의 시작과 현재까지 거쳐 온 과정을 언급하시며 장학 사업을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하신 계조 방우모 선생의 시대를 앞선 통찰력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사장님은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석하신 장학회 관련 내빈 분들과 서중회 회원 분들에게 감사사를 전하셨습니다.

일동은 코리아나 호텔 7층으로 장소를 옮겨 맛있는 저녁 식사와 함께 '신규 장학생 환영회 및 졸업생 환송회'를 가졌습니다. 자리는 장학회 간사 37기 유현석 군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서중회 회장님과 장학회 9기 선배분의 경험이 담긴 의미 있는 조연을 들은 후 졸업생 선배님들의 인사를 들었습니다. 특히 장학회와 함께했던 지난날을 회고하며, 신규 장학생들에게 세미나, 여름엔티 등 장학회 생활에 대한 여러 팁을 주신 졸업생 선배 분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신규 장학생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지고, 예상치 못한(?) 장기자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부끄러워했지만, 자신의 차례가 되자 모두들 숨겨뒀던 끼를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장기자랑으로 한껏 고조된 분위기로 저녁식사는 흥겹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사무국장님께서 신규 장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책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서중회의 시작과 발전과정을 담은 책 한 권과 고당(古堂) 조만식 선생의 이야기를 다룬 책 두 권이었습니다. 특히 사무국장님께서, 탈북 장학생 10명에게 지급되는 고당 선생에 대한 책은 탈북 장학생들에게 많은 영감과 느낄 점을 줄 수 있는 좋은 책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서중회에 대한 책 역시 장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방우영 상임고문이 신규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신규장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몸담게 될 서중회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장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하는지 알 수 있는 책이니 만큼, 모든 신규 장학생이 일독할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4월 있을 세미나에서 나눠준 책들에 대한 시험을 보겠다는 진담 반 농담 반 말씀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신규 장학생들은 모두 보조장학금을 지급받고 귀가했습니다. 장학생들 모두 헤어지며 오늘 행사에서 서로 만나게 됐음을 자축하는 동시에, 4월 세미나에서 다시 만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규 장학생에게는 앞으로의 장학회 행사를 더욱 기대하게 하는 소중한 행사인 동시에, 졸업생들에겐 앞으로 서중회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장학회 신년회에 참석하다

김기렴 <장학회 35기 · 연세대 경제학과 3년>



방상훈 사장이 신년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1년 장학회 신년회 및 서중회 정기총회가 1월 19일 오후 7시 코리아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열렸다. 이번 신년회에는 바쁜 일정 속에도 재단 관계자와 조선일보 임직원, 서중회원, 재학생 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조연홍 이사장님과 방상훈 사장님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날 모임에서 서중회원들과 재학생은 화목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누며 만찬을 함께 했다.

조연홍 이사장님은 서중회 근황을 전하시면서 먼저 지난 연말 선발한 탈북 장학생(학부)을 언급하셨다. 기존에 2년간 대학원생 한명씩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이제 다양한 대학으로부터 학부생 1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음을 알리면서, 선발된 인원들은 모두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고 뚜렷한 국가관을 지닌 인재로서 이들이 수행할 통일 역군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셨다. 다음으로 새로 선발된 38기 장학생 및 재학생들의 소식을 전하셨다. 38기 서울대 경영대 소속 장학생 5명 전원은 선발 당시 학점이 4.3만점에 4.3점이어서 이를 통해 뛰어난 면모와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재학생들이 사법시험 합격 및 로스쿨 진학을 통해 법통을 잇게 된 것, 외무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장학생을 언급하시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장학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서중회 강남 모임 신설 및 번개모임의 결성으로 장학회를 통한 만남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셨다.

이어 방상훈 사장님이 격려 말씀을 하셨다. 먼저 조선일



최성환 서중회장



서중회원들이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가 지난 1년 반 동안 갖은 노력과 어려움을 겪어내며 성취한 중편진출에 대해 언급하셨다. 특히 당국의 서류검토 1주일 기간 동안 조선일보가 제출한 서류가 8만 5천 페이지 지나 되었다는 말씀은 그간의 어려움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하여 당분간 뇌리 속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다. 이어 방 사장님은 중편진출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결과지만 20년 전 상황과는 달리 사업자가 많아짐에 따라 앞으로 얻게 될 이득이 들인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음을 지적하셨다.

그러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미디어 회사에 신문, 뉴미디어와 더불어 방송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중편 진출은 시작되었다고 밝히셨다. 그간 지상파 방송사가 정권, 포퓰리즘으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지 못했고 오히려 폐륜적인 방송 콘텐츠를 통해 도덕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기에 유익하고 건전한 방송을 만들어 보겠다는 대의에서 추진 되었음을 언급하셨다. 더불어 조선일보가 쌓아온 경영 노하우와 부단한 노력으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이시면서 우려를 불식시켰다. 방 사장님 역시 탈북 장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 언급하셨다. 가까운 미래에 물리적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단 후 60년 이상

의 세월이 흐른 만큼 괴리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탈북 장학생들에게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하셨다. 이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에서 서중회 회원들의 애정과 도움이 필요함을 역설하셨다. 또한 조선일보의 뿌리는 이북에, 평안도에 있음을 알리시면서 이번 선발된 탈북 장학생 중에 평안도 출신이 없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을 나타내셨다.

다음으로 최성환 서중회장님의 인사말이 있었다. 서중포럼, 해피아워 등 서중회원의 모임 소식을 전하시고, SSKK(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해야 한다), 번사또(번함없는 사랑으로 또 만나자) 등 재미있는 건배사를 소개하며 즐거운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기수별로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각계각층에서 사회의 주역으로 일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은 그 활약상만으로, 재학생은 재치와 자신감이 넘치는 소개로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지루한 줄 모르고 소개를 들었다. 서로 간에 자극도 되고 자랑도 되는 시간이었다. 또한 많은 서중회원과 재학생들은 평소 방 일영문화재단 및 조선일보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소개 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 다시 한 번 누리 는 특권에 대해 감사하고,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되었다.

4월*

선우정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

대지진으로 본 일본, 일본 사람

지난 3월 11일,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 동쪽 해역에서 모멘트 규모 9.0의 거대한 지진이 발생하였다. 일본 방송 매체는 빠른 지진 경보 시스템을 통해 쓰나미 피해 상황을 라이브로 중계하였다. 사실 일본은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거대 지진의 주기설을 믿어왔다.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 역시 예상되었던 일이다. 다만 도쿄-나고야-오사카를 잇는 일본 최대 산업벨트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빚나가 재해 대응이 미비하였다고 한다. 동북부 연안에는 큰 도시가 없어 물적 피해는 적지만, 지진의 여파가 방사능 물질 누출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일본의 대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지진피해로 인한 일본 산업 경제의 타격과 혼란 속 일본인 특유의 질서 정신이 나날이 보도되었다. 이번 대지진 사태는 일본의 경제적 타격과 회복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민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 것이다.

대지진, 고령화 그리고 일본 경제

이번 대지진의 피해를 입은 지역은 태평양을 낀 부두와 연안으로, 보통 시골의 한적한 마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인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원전의 방사능 유출이라는 변수가 작용하면서 그 피해의 범위나 규모, 지속 정도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 그 지역 동식물의 오염은 일일이 통제할 수 없어 질병과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빠르게 증폭시키고 있다. 이를 복구하는데 일

본은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지진이 발생하고 이것이 일본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4명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 적이 있다. 당초 예상은 GDP의 4%에 이르는 20조 엔의 복구비용과 긴 복구 기간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4명의 전문가 모두 이를 부정하였다. 일본의 뛰어난 기술력은 무형으로, 산업 시설이 붕괴된 것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오히려 복구 수요를 통해 일본 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결국 ‘그래도 해는 다시 뜬다’라는 일본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사실, 일본 경제를 침체시킬 요소는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고령화 문제에 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생산가능 인구, 즉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이는 생산과 소비 다분야에 걸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젊은 세대가 주요 소비 대상이 되는 자동차, IT, 백화점, 양복, 시계 산업 등에서는 그 성장률이 0% 이하인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 노동 인구의 유입을 개방하는 것이지만, 일본의 내향적인 성향으로 단기간에 쉽게 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의 이중적 국민성

국제 사회는 어마어마한 재해 앞에서 맥없이 당하는 일본 열도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인의 재난에 대비하는 태도를 보고 한 번 더 놀랐다. 재난으로



선우정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앞줄 가운데)이 강연이 끝난 후 장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인해 부족한 물품을 받으려고 질서 있게 기다리는 태도, 남보다 먼저 많이 받으려는 것도 없이 조용히 기다리는 태도에 세계 언론은 ‘인류 정신의 진화’라 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에서 6여 년 간 특파원으로 지내면서 본 일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일본인은 지진에 대해 익숙히 대응하면서 그 지진에 대한 숙명적인 인식을 지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일본인 특유의 ‘자숙(自肅: Jishuku)’이라는 국민성이 발휘돼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절제하는 미덕을 지닌 것이다.

그러나 대지진 이후 센다이 지역 일대를 취재하러 갔다가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센다이에서 40km 떨어진 텐도라는 도시 사이 길에는 피해 지역을 향해 가는 구호물자나 자원봉사자 등을 볼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구조 작업에 뛰어든 건 인근 지역 주민들이었다. 최근 천안함 사건 때도 장병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고 한주호 준위도 생각해 볼 때, 이는 ‘한국적’인 인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 교수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일본인들은 도와주겠다고 갔다가 폐를 끼칠까봐 움직이지 않는다고 대답해주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자숙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과연 이것은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배려의 마음일까, 아니면 냉정하고 냉혹한 이기심의 모습일까.

마치면서

이번 동일본 대지진 사건은 일본 경제에는 그리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인의 국민성에 대한 존경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어렸을 때부터 엄격히 교육을 받은 것이 일본인의 내재적인 국민성이 되었다. 이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같이 고립된 열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체득된 성격일 것이다. 평소에는 이러한 남을 위한 배려가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관료제적인 일본 정부, 정부의 행동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일본 시민 사회는 이기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한번 얻어진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번 사건으로 일본의 시민 사회가 성숙해 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과연 일본이 세계가 말하는 ‘인류 정신의 발전’을 보여준 것인지의 의문이 간다.

<정리: 유현석 · 장학회37기 · 고려대 정의과3년>

5월*

김성수 (성공회 주교)

가슴이 따뜻한 사람

장애인들은 특수 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립도 할 수 없다. 이들이 일자리를 갖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강화도 길상면 온수리 ‘우리마을’에서는 장애인들이 콩나물을 골라내고, 포장 등을 하며 일자리를 갖고 생활한다. 7년전 우리마을을 세울 때, 복지부 장관이 20억 원을 기부해 주셨다. 이러한 고마운 분들이 없으면 우리마을과 같은 복지시설을 유지하기 힘들다. 성공회 대주교, 성공회대 총장 등과 같은 많은 직책들을 해 보았지만 나는 이러한 것들 보다 지금 ‘우리마을’에서 더 행복하고, 솔직히 배우는 것도 많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아무 생각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쉬울 수도 있다. 그것은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사는 것이다. 반면, 불행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들은 딱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사상이 하나 아렌트는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을 비판하였다. 한나 아렌트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아돌프 아이히만을 예로 들었다. 그는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실천만 하는 무의식적인 사람이

었다는 것이다. 아이히만은 나치 정권하에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지만 전범 재판에서는 단지 시킨 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하였다. 아렌트는 이러한 사람은 학살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이들은 권력에 저항하지 않는 기계일 뿐이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각하지 못하는 딱한 사람이며, 이들이 갖는 죄는 무의식의 죄라고 하였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될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즉, 타인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사회 지도자가 되어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괜히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똑똑하기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또 무식한 티가 나지 않도록 장단도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들다. 영약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숨은 의도를 파악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혹시 자신이 이용되는지 의심하며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다. 그러나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이해관계를 떠나 사람을 만나는 기쁨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이러한 사람들을 친구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절반, 아니 인생 전부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줘라’ 라고 하며 남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서 해주라고 하였다. 공자는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한다’ 라



김성수 주교(앞줄 가운데)가 강연이 끝난 후 장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고 하며 타인을 생각하라고 하였다. 두 성인의 말씀처럼 소중한 이들에게 소중히 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회지도층들이 이러한 말을 가슴에 새기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된다면, 사회가 깨끗하고 편안해지며 사람들이 서로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한국유리 최태섭 회장 이야기

그러한 사회 지도층으로 ‘한국유리’ 창업자인 최태섭 회장이 있다. 이 분은 법관 공부를 그만 두고 무역회사를 만들었다.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최태섭 회장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계약대로 하여 주변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다. 이러한 최 회장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들 최 회장을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최 회장은 14 후퇴 당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융자받은 돈을 갚았다. 그는 빌린 건 빌린 거고 은행돈이니까 갚아야 한다

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갚았다. 남들은 돈을 갚기는커녕 다들 피난 가는데 정신이 없었지만 그는 정직하게 돈을 갚은 것이다. 최 회장의 이러한 정직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정직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가슴이 따뜻한 인물을 만든다. 최 회장은 ‘사랑, 정직, 신용’을 기업의 목표로 삼고 항상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며 남들을 도와주었다. 그는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특수 학교를 세우고, 다양한 교사 지원사업을 하시고, 고아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항상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를 중요시 하셨다. 최 회장의 부인은 이러한 남편을 둔 것을 자랑스러워 하였다. 최 회장은 실천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비상한 사업가인 동시에 따뜻한 가슴을 지닌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다. 즉, 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것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미국에서 한국까지’가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까지’ 라고 하셨다. 즉,

서로 나누자, 이웃을 섬기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서 실천의 어려움을 일컫는 말이다. 머리로 외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 그러나 가슴으로 알게 된 것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잊지 않는다.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면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고 감동도 생긴다.

열림과 나눔, 섬김의 감동

지식인들은 열림, 나눔, 섬김의 이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열림은 지식인이 편견에서 벗어나 열린 생각을 해야 된다

는 것이다. 또한, 독점을 하여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면 안된다. 지식은 권력과 같은 것이며, 그것을 타인과 공유하고 나눌 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섬김은 예수의 진정한 가치로 '감동'이란 기적을 만들어 낸다. 섬김의 진정한 가치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행하였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가장 힘든 일은 타인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타인의 마음은 오직 섬김으로써만이 바뀔 수 있다.

감동적인 인생을 사십시오!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공부를 하십시오! 이것이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정리: 김태훈 · 장학회 38기 · 연세대 경영학과 2년>

6월*

조용헌 <원광대 초빙교수>

조선 명문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에 대한 소개를 하겠다. 컬럼니스트라는 직업에 얽힌 이야기다. 중학교 시절 어머니께서 나에 대한 팔자를 보았는데, 붓으로 먹고 살 팔자라고 하였다. 당시의 나는 이를 믿지 않았는데 조선일보에 컬럼을 쓰면서 어느 새 컬럼니스트가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공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겠다. 공부란 독만권 행만리이다. 즉,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를 여행하는 것이 곧 공부인 것이다. 그래서 집안이 유복하면 여행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가난하다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러므로 20대의 대학생들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많은 책을 읽고 여러 군데 여행을 다니는 것이 길게 보았을 때 보다

의미있는 일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배려해야

이제 오늘 세미나의 본래 목적으로 넘어가서 조선 명문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조선 명문가란 곧 조선시대의 상류층인 양반 집안을 의미한다. 내가 그동안 연구를 해본 결과, 명문가로서 오래 존속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

격동기의 조선 지주 집안의 운명을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지 않은 경우와 많이 베풀 경우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알 수 있다. 6.25 전쟁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지 않던 조선 지주 집안들은 그동안의 착취에



조용헌 교수(앞줄 가운데)가 강연이 끝난 후 장학생들과 함께 했다.

대한 보복으로 머슴들에게 무자비하게 살해당하였다. 반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 지주 집안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존속할 수 있었다.

여순 반란 사건 때에도 머슴이나 소작농들의 지주 집안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있었다. 지주 집안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부잣집 사람들을 모아 놓았는데, 당시 여수 최고의 부잣집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사형여부를 결정하는 지도자가 바로 그 여수 최고의 부잣집에서 소작농으로 일 하였던 농부의 자식이었다. 그 지도자는 아버지가 소작농 시절에 그 부잣집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은혜 때문에, 그 부지를 몰래 풀어주었다. 이로써 그 부잣집안은 존속할 수 있었다.

경주 최 부잣집의 가훈

마지막으로 조선 명문가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표적 사례인 경주 최 부잣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경주 최 부잣집은 300년 동안 만 석의 재산을 유지한 명문가이다. 만 석의

재산은 오늘 날로 이야기하면 재벌급의 재산을 의미한다. 그 집안이 300년 간 그 정도의 재산을 유지한 비결을 살펴보면, 역시 주변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자세에 있었다. 이는 그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가훈을 들여다보면, '만 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지나가는 과객에 대한 대접을 후하게 해라' 라는 항목이 있는 걸 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은 취업문제에 너무 열중하지 말고, 많은 독서와 여행을 경험하라는 충고를 새겨들었으면 한다. 또 거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하며, 너무 일찍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을 길게 보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조용헌 교수는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학생들은 관상이나 사주, 꿈 해몽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정리: 이재우 · 장학회 38기 · 고려대 경영학과 2년>



재단지원 신간안내

그때 그 시절 KBS 이야기 (KBS사우회 엮음)

1927년 경성방송국(라디오)으로 출발한 한국방송이 올해로 84년의 긴 역사를 갖게 되었다. 특히 2011년은 TV 방송사에 뜻깊은 해다. 지난 1961년에 개국한 KBS-TV 방송이 금년 12월이면 방송을 시작한 지 50주년을 맞게 된다. 평생 방송 현업에 종사해 온 퇴역 방송인들의 모임인 KBS사우회가 국내 방송의 역사를 한권의 책에 담았다. 김인규 KBS 사장, KBS 공채 1기 아나운서 출신인 이계진 국회의원, 드라마 '겨울연가'를 연출한 윤석호 PD 등 6개 분야 57명이 참여했다. 책에는 각 직종별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방송 제작 과정 및 우여곡절을 겪은 취재 후기 같은 에피소드들이 빼곡이 담겨 있다. 특히 당시는 제작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에피소드와 때로는 황당하고 기상천외한 이야기, 그리고 드라마같은 경험담이 많다. 이러한 생생한 현장 일화를 통해 독자들은 방송인 개개인의 희로애락부터 국내 방송의 변천사까지를 소상히 엿볼 수 있다. 또한 138일간 453시간 45분의 마라톤 방송으로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 시간 생방송'으로 기록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제작과정 등도 담았다. 커뮤니케이션북스, 1만 5000원.



나는 예술가다 (권근영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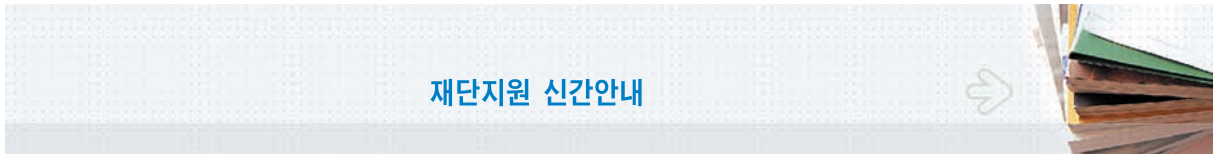
“미술은 없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 에른스트 고프리치의 '서양미술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선배작가들에 반(反)해 끊임없이 새로움을 창조한 작가들이 이끈 발전의 역사가 곧 미술사라는 설명이다. 걸작을 만드는 미술가들. 그들은 왜 미술가가 되었고 어떻게 작업하며 살아갈까? 그들에게 예술이란 무엇이며, 그들의 작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저자는 중앙일보와 미술 전문가 50명이 선정한 '10명의 주목할 만한 미술가'들을 찾아가 묻는다. 그리고 그들이 차갑게만 느껴지는 현대미술을 뜨겁게 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양혜규는 미술가로서의 자신을 속박하는 가족관계라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주 활동 무대인 베를린을 떠나 서울에 돌아와서도 집을 찾아가지 않는다. 조각가 김주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수행하듯 거실에 세워 둔 이젤에 선긋기를 한다. 그들은 몰입과 성실로 자신을 갈고 닦으며, 농사짓듯 성실하게, 치열한 자기 절제와 헌신으로, 기발한 상상력으로, 세상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작품에 담는다. 저자가 이들 10인의 예술가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바로 온전히 자기화 된 삶 그 자체다. 세미콜론, 1만 8000원.



런던이 사랑한 천재들 (조성관 글)

해가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대영제국! 영국은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서안해양성 기후에 영글로색슨이라는 인종적 특성과 청교도주의가 더해져 문학이 상대적으로 발달해왔다. 시인, 소설가,



재단지원 신간안내

극작가만 해도 차고 넘치는 곳이 영국이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여섯 명의 천재는 찰리 채플린, 조지 오웰, 윈스턴 처칠, 제임스 배리, 버지니아 울프, 찰스 디킨스. 이들은 모두 1812년에서 1977년에 살았던 인물들이다. 1977년에 사망한 채플린을 제외하고 이들이 활동한 시기는 빅토리아 시대이다. 대영제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하며 선진 문명을 자랑하던 시기와 거의 겹친다. 그리고 그 심장부인 런던은 오랜 세월 세계의 수도로 군림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받아들였다. 찰스 디킨스는 19세기 인물이고, 조지 오웰은 20세기를 살았다. 제임스 배리, 처칠, 채플린, 울프는 19세기에 태어나 20세기에 꽃을 피운 사람들이다. 저자는 런던에서 여섯 명의 천재와 만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여섯 명의 천재는 시대의 위선과 부도덕에 맞서 인간이 자유롭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전선에서 투쟁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찰리 채플린이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보육원, '피터팬' 동상이 서 있는 켄싱턴 가든 등 풍부한 현장 사진자료를 곁들여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듯 생생하다. 열대림, 1만 8000원.

민초통신 33 (민병욱 글)

풀뿌리 서민들이 사는 모습을 정확히 아는 건 힘든 일이다. 신문 방송은 물론, 인터넷에 스마트폰까지 나서 온갖 세상 얘기를 다해주는 요즘도 마찬가지다. 알려고 마음먹으면 뭐든 알 것 같지만, 사실 제대로 모른 채 넘기고 넘어가는 일상이 수천수만 가지다. 30년간 신문사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저자가 1960년대, 70대, 그리고 80년대 풀뿌리 서민들의 삶과 꿈을 살살이 열어젖힌다. 거창한 얘기에 가린, 정말 풀뿌리 서민이 울고 웃고 앓고 괴로워하며 숨쉬던 이야기. 우리 기억에서 사라진 삶의 순간, 조각난 편린을 하나하나 맞춰간다. 서울의 마지막 굴뚝소제부가 활동하고, 인천송도 · 부산해운대 · 강릉경포대에 인파가 몰리기 시작한 60년대, 번데기 식중독 사건과 장발단속, 일본인의 단체 매춘관광, 겨울철 사회면의 단골뉴스였던 연탄가스 중독사고, 관악산 판자촌 산사태까지 일간지 사건기자가 포착한 지난 한국 사회의 33가지 풍경이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드러나지 않으면서 묵묵히 한국사회를 지탱해온 우리 부모 형제자매 이야기다. 한국사회 미시사, 아니 미시 풍속사다. 나남, 1만 5000원.

바람의 눈 (김연수 글 · 사진)

야생 조류 사진가의 로망이라 할 수 있는 맹금류의 생생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우리나라에서 맹금류는 그 개체수가 많이 줄었고, 대부분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 그들은 자연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로 개체수가 적은 희귀한 조류이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의 주제는 한국의 맹금류다. 매목 매과에 속하는 매 · 새호리기 ·





재단지원 신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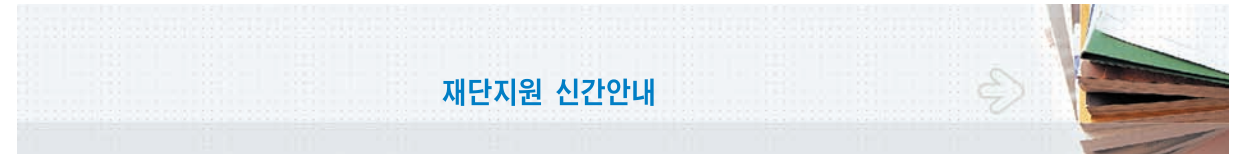
황조롱이, 매목수리과에 속하는 검독수리·독수리·말뚝가리·물수리·벌매·붉은배새매·새매·솔개·왕새매·젓빛개구리매, 조롱이·참매·참수리·흰꼬리수리, 올빼미목 올빼미과에 속하는 금눈쇠올빼미·소쩍새·솔부엉이·쇠부엉이·수리부엉이, 올빼미·긴점박이 올빼미·참부엉이, 그리고 쌍도둑새의 쌍도둑새 등이 금방이라도 책 속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생생한 모습과 친절한 설명으로 담겨있다. 제2부는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 록된 우리나라의 매사냥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 담겨있으며, 제3부에는 저자가 겪은 매사냥의 경 험이 사진과 함께 소셜 형식으로 첨부됐다. 수류산방, 2만 5000원.

언론인이 꿈꾸는 세상 (최상현 글)

언론인인 저자가 40여 편의 에세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각종 현상과 다양한 사건을 흥미진진하 게 해석한다. 중국 당나라의 시선 이태백이 노래하는 무릉도원과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에덴동산을 대비시켜 '유토피아'의 의미를 짚고,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 바타'를 통해 대통령의 레임 덕을 설명한다. 또 영국 작가 조너던 스위프트의 소설 '걸리버 여행 기'를 빌려 대한민국 국회를 풍자하고, 아파치 인디언 추장 제로니모 이야기를 가져와 대테러 전 쟁의 의미를 분석한다. 특히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에 맞서다 죽임을 당한 성삼문의 죽음을 의롭다고 일컫고, 주군이었던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 무왕에 저항해 수양산에 숨어살 며 고사리만 먹고 살다 죽은 백이·숙제의 고사를 평가절하한 대목에서는 저자가 꿈꾸는 세상이 드러난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이 글을 마치 일기를 쓰는 심정으로 썼다고 밝힌다. 그만큼 쉽고 간단 하며 읽는 재미가 넘친다. 두두림, 1만 2000원.

오색오색 흥미진진 요괴백과 (김세원 글)

20여 년간 신문 기자로 일한 저자가 여러 나라를 취재하면서 모은 요정과 괴수, 정령들에 관한 자료를 담은 책. 우리나라의 구미호, 중국의 강시,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 동유럽의 흡혈귀 등 어린 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서양 50가지 요괴들의 탄생부터 생김새와 성격, 요괴와 관 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림, 사진과 함께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사실 우리 어린이들 중에는 드 라큘라나 엘프는 잘 알아도 마고 여신이나 삼신할머니, 불가사리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신령스런 인물이나 요괴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아마도 자연 스펙트럼 동서양의 신령스런 존재와 요괴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 차이 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요괴를 소재로 한 만화 나 영화, 소설, 음악까지 다루고 있다. 찾아보기에는 세계지도를 넣어 각 나라에 해당하는 요괴를



재단지원 신간안내

배치해 지리공부도 겸할 수 있게 했다. 종이책, 9000원.

태블릿PC에 꼭 담은 영화35 (김용길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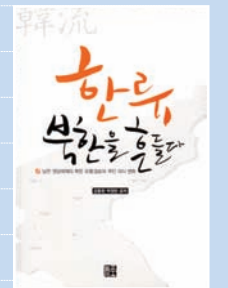
'광화문 해리슨'이란 ID로 영화 블로그를 운영하는 저자가 3년 넘게 연재한 칼럼들을 한데 모 았다. 책에는 각기 다른 주제가 네 개의 신(scene)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랑은 소통' '사람답게 사는 것' '순수, 그 잊혀지지 않는 것들' '액션 불패' 등이 그것이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 자는 어려운 말도, 복잡한 추론도 하지 않는다. 비평가들의 난해한 용어와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 키기 위한 무리한 해석과는 애초에 거리가 멀다. 그저 영화 줄거리를 따라가며 이야기를 전개하 기 때문에,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 읽어도 실제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읽는 영화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느끼는 영화의 감동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화면으로 볼 때 현란한 화 면과 음향에 압도되고 마는 이성이 영화를 곱씹으며 다시 살아나서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를 찾 아낸다. 지상사, 1만 3500원.

한류, 북한을 흔들다-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 (강동완·박정란 글)

한류 열풍이 뜨겁다. 이제 한류는 일본, 중국, 동남아를 넘어 유럽까지 확산되며 세계인들의 마음 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다면 북한은 어떨까? 폐쇄된 국가, 은둔의 나라로 알려진 북한, 통제와 감시 속에 잘 짜인, 창살없는 감옥으로 묘사된 북한 사회에도 과연 한류가 있을까? 그동안 일부 북한 주 민들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한다는 사실은 연구와 언론보도를 통해 간간히 알려져왔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두 저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나 영화가 유통된다면 어디까 지, 그리고 어느 계층에까지 퍼져있는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또한 남한 영상매체 시청이 북한 주 민 개개인의 의식과 행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북한 당국은 이러한 남한 영상매체체의 확산 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둔다. 저자들은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함께 심층면접법을 주 요 연구방법으로 삼는다. 면접참여자는 2000년 이후 북한을 나온 33명이었다. 연구의 목적은 분명 하다. 오랜기간 북한 당국의 억압과 통제 아래에서 편향된 정보만을 주입 받아온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드라마·영화와의 만남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한 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한국 문화에 다가서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늘봄플러스, 1만 2500원.

현대사회와 언론학 (서정우 글)

신문현상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이해하고 논의한다. 신문현상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논의하는 이유는, 신문현상이란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부분개념이며 하위체계이기 때문이다. 신





재단지원 신간안내

문헌상을 확대하면 언론현상이 되고, 언론현상을 확대하면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위체계인 신문현상을 상위체계인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규명하는 노력은 신문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문현상을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논의하는 또다른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란 신문현상의 시작이며 원인이기 때문이다. 신문현상은 인간의 본능인 의사소통 욕구의 사회적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로 나타난 신문현상을 원인으로 작용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규명하는 노력은 신문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책의 기본 구성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제1장은 언론현상의 이해를 논의하고, 제2장은 언론현상과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제3장은 언론현상과 언론학을, 제4장은 언론의 송신자 연구를, 제5장은 언론의 내용 연구를, 제6장은 언론의 매체 연구를, 제7장은 언론의 수용자 연구를, 제8장은 언론의 역사 연구를, 제9장은 국가적 비교 연구를, 제10장은 언론의 효과 연구를, 그리고 제11장은 종합적 논의와 과제를 논의한다. 범우, 1만5000원.

안단테, 안단테(김동익 글)

일제시대와 해방, 625전쟁 등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살아낸 한 남자가 역사의 거대한 바람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다. 주인공 한건수는 일제시대, 아버지를 찾아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밀항한다.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이즘(ism)'의 난립은 일본에 있던 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는 자기 나름의 선택을 한다. 이후 한건수는 사업가로 성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남부럽지 않은 나날을 보낸다. 하지만 어느 날 미국행 비행기에서 한 여인과 운명의 재회를 하면서 그의 삶은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간다.

인생은 어쩌면 선택의 연속이다. 한건수는 늘 적절한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간다. 그러나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조국에 대한 그리움은 모든 걸 다 이룬 그에게 결핍감을 안긴다. 소설의 제목이자 주인공이 운영하는 바(bar) '안단테 안단테' 가바로 그 결핍의 증거물이다.

1963년 한국축구가 처음으로 월드컵에 출전하게 된 사연, 그 축구단을 지원한 당대 최고의 한국계 프로레슬러 역도산, 재일 겨류민단과 조총련의 격렬한 충돌 등 격랑의 한국현대사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이 소설의 또 다른 재미다. 나남, 1만4000원.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 말레이시아(박종현 글 · 사진)

우리가 잘 몰랐던 말레이시아에 대한 속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대학에서 말레이시아어를 전공하고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에서 공부한 기자가 학문적으로, 그리고 직접 부딪히면서 관찰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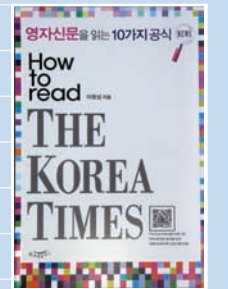
재단지원 신간안내



용들을 찬찬히 풀어놓는다. 저자는 말레이시아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이슬람', '다민족 다문화', '부미푸트라'와 '메르데카'를 꼽는다. 말레이시아에 처음 온 이들은 대부분 미국만큼이나 다양한 민족이 사는 것을 보고 조금은 놀란다. 이 나라는 원주민격인 말레이계는 60%가 조금 안 되고 화교계와 인도계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략적으로 30%와 10%에 이른다. 아시아판 뉴욕이 따로 없을 만큼 이 나라는 다민족 다문화국가다. 부미푸트라는 현지인들이 말레이 사람을 언급할 때 쓰는 말로, 부미푸트라는 여러 면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 다수 집단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메르데카'는 독립을 뜻하는 말로, 영국의 오랜 식민지에서 벗어나 반세기 만에 동남아 최고의 부국으로 성장한 말레이시아인들의 자부심이 묻어있다. 이밖에 동남아 최고의 관광대국이기도 한 여행지로서의 말레이시아의 모습도 소개된다. 즐거움상상, 1만5000원.

영자신문을 읽는 10가지 공식 How to read (이창섭 글)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에 지난 15년 동안 사용된 단어는 약 1만여 개, 코리아 타임스와 같은 국내 영자신문만 제대로 읽고, 거기에 나오는 정도의 어휘를 구사할 수 있다면, TOEIC, TOEFL, TEPS 등의 공인 인증 시험에서 무난하게 고득점을 얻을 수 있고, 미국 대학생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 수 있다는 이야기다. 6년 동안 코리아 타임스 편집국장으로서 일한 저자가 신문 제작자의 입장에서 신문 수요자를 위해 만든 현장감 있는 생생한 보고서, 현장 기록을 정리하여 현직 언론인으로는 최초로 영자신문을 읽는 방법론을 기술했다. 영자신문을 처음 읽기 시작한 초급자에서 시사영어에 익숙한 중급 독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체 10개의 챕터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챕터는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영문법을 먼저 익히고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제시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신문을 읽고 영문법을 이해하게 하는 역발상을 시도한 점도 새롭다. 한나래플러스, 1만3500원.





방일영문화재단

The Bang Il-young Foundation Newsletter

